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3월 6일

CUOMO 주지사, 지역 경제를 받치는 뉴욕주 소규모 양조장 및 농장 포도주 양조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

*이 법안은 소규모 양조장의 성장과 지역에서 성장한 농장의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에게 부담스러운 세무 신고 요건을 면제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 소규모 양조장의 성장을 촉진할 “농장 양조장” 면허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오늘 제안하였습니다.

이 신규 면허는 뉴욕주에서 재배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규모 양조업자들이 주의 포도주 양조장과
유사한 식으로 조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재배 농장 제품의 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및
관광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세무 신고
요건을 면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뉴욕주 전체의 양조장, 농민, 포도주 양조장 및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전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을
진흥하며, 환경친화적 경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우리 주의 성장하는 소규모 맥주
산업에 제공할 것입니다.”

소규모 양조 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진흥하기 위한 주지사의 법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제품을 위한 소매점 증대: 이 법안은 농장 양조장이 뉴욕주 라벨 포도주를 그들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농장 포도주 양조장도 가게 안에서의 음주를
허락하지 않는 소비를 위한 뉴욕주 라벨 맥주의 판매가 허용될 것입니다.

Korean

농장 양조장의 식당 개설 허용: 이 법안은 농장 양조장이 농장 양조장에 또는 그 인근에서 식당, 컨퍼런스 센터, 여관,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 또는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시음회 증대: 이 법안은 농장 양조장 및 농장 포도주 양조장이 그들의 구내에서 뉴욕주 생산 맥주 및 포도주의 시음회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관련 제품 판매: 이 법안은 농장 양조장이 맥주 제조 장비 및 용품, 식품 보조 맥주 및 포도주, 기념품 그리고 농장 포도주 양조장 조례에 의거 허용되는 것과 유사한 추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농장 양조장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맥주가 주로 지역 재배 농장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7년 말까지 호프의 적어도 2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40%가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호프의 적어도 6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75%가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호프의 적어도 9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90%가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제조된 맥주는 “뉴욕주 라벨 맥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76년의 “농장포도주양조장법”을 본 딴 것으로서, 이 법은 이 주에서 237개 농장 포도주 양조장의 출현과 포도주 양조장 수의 3배 증가를 포함하여 포도주 생산 성장을 촉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세무 신고 요건을 면제하기 위한 법안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여기 뉴욕주의 모든 맥주, 포도주 및 증류주 도매상은 식당, 바 및 기타 소매점에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농장 증류주 양조장들이 작고, 종종 가족 소유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연례 신고를 준수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신고 요건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주 세무부가 받는 이득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농장 증류주 양조장으로부터의 구입액이 주의 맥주 및 포도주 총 판매액의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법률에 의해 매출액 기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므로 세무부는 요청만 하면 그것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의무적 신고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뉴욕주 농장국의 국장인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장 포도주 양조장의 성장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의 농장 증류주 양조장 추세에 이르기까지 지역 생산 농장 제품에 특별히 연계된 알코올 음료 면허 부문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엄청난 성장 기회를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지역 농민들이 뉴욕주를 과거 우리가 그랬던 주요 호프 재배 주로 복귀시키고 우리 주에 부가가치 시장 및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은 우리 농민 회원들을 위한 새 마케팅 기회를 계속 열기 위해 Cuomo 지사가 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매우 기쁩니다.”

뉴욕주 주류청 청장인 Dennis Ros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들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장 양조장들이 확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비즈니스들이 농장 포도주 양조장처럼 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경제 발전과 관광업을 진흥할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전체에서 농업 및 양조업을 진흥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증대할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시장부 커미셔너인 Darrel Aubert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기 뉴욕주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해쳐 온 부담스러운 세무 신고 요건을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농장 증류주 양조장에 면제할 것입니다.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농장 증류주 양조장들이 작고, 종종 가족 소유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연례 신고를 준수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를 비즈니스에 개방하는 것을 그의 행정부 최우선 순위로 삼았는데, 이 법안은 소규모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에 부과되어 온 부담스러운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소규모 양조장 및 농장 포도주 양조장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 부분으로서 주 전역에서 일자리와 관광업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법안이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